

# 전주의 소리, 지역·세계를 연결하다

지난 15일 열흘간의 여정에 나선 2023 전주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광준 이하 소리축제)가 종반을 넘어서며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협업과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공연은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호우지시절>'이다.

19일 소리축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의 콘텐츠와 예술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오며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판소리를 통한 국제 협업 작업은 2017년 쿠아트르 미니발(일본, 멕시코)과 소리꾼의 만남, 2019년에는 플라멩코 비엔날레와 진행했다. 세 번째 판소리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중동과 페르시아 음악 그리고 한국의 판소리 등·서양이 두 개의 오리엔트가 만나 서로의 음악적 시너지를 발휘하며 새로운 소리를 탄생시킨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 세계 다양한 음악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페르시아인 세타르 명인 키야 타바시안(Kiya Tabassian)의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작됐으며, 2024~2025년 캐나다

## 전주세계소리축제, '한-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

### '동아시아 문화도시 호우지시절' 등 마련... 23일 공연

부어 등 상호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호우지시절>'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공연으로 지역음악인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무대는 전 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가깝게 공유해 온 한중일 3국의 전통음악이 지닌 고유성과 동질성의 조화를 통해 서로 다른 아시아 속의 다양한 음악과 예술적 만남을 느낄 수 있다.

####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

'콘스탄티노플'의 음악감독이자 이란 출신 세타르(Setar)의 명인 키야 타바시안은 자신의 뿌리인 페르시아 음악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계 없는 음악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중해 지역의 고음역 선율과 음유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음악적 여정(Journey)을 깊숙이 살펴왔다.

그가 이끄는 '콘스탄티노플' 역시 그 여정을 기반으로 한 앙상블이다. 이들은 동서양의

교차점으로서 찬란히 빛났던 고대도시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의미와 상징 그 자체를 추구한다.

이번 공연은 역사, 문화 그리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지속해온 '콘스탄티노플'의 지중해 고음역과 또 다른 오리엔트의 음악 '소리꾼 정상희'의 판소리가 한 무대에서 만난다.

고도로 숙련된 소리꾼 정상희의 보컬리스트로서의 기교와 성음, 강렬한 표현 위에 얹어진 유려하고 풍부한 지중해 선율의 아름다운 조화를 기대해도 좋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 ▲동아시아 콘서트 '호우지시절'

'호우지시절(女雨時節)'은 청두 출신으로서 중국의 시성(詩聲)으로 불리는 두보의 시 <춘야화우(春夜喜雨)의 첫 구절 '반가운 비가 시절을 안다(女雨時節)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공연이다.

중국 <청두 칭웨이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민족음악단>, 일본 <실크로드 재팬앙상블>, 한국 <악단 사이(송봉규, 진은영, 유다현, 최유리, 이창원)> 각국의 음악인들이 선정한 시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소나기 프로젝트 대표이자 관현악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장재호가 맡았다. 판소리가 좋아서 음악을 시작한 그는 아쟁, 타악연주자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음악인이다. 또한 다국적 그룹 쿠아트르 미니발의 멤버이자 일본 월드뮤직축제 '스키야기 및 더 월드'의 자문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활약해왔다.

더불어 프로그램 자문으로는 김유석 전북대 교수(중국 자문), 가미노 치에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 특임조교(일본 자문)가 참여해 3국 음악인들 협업의 조율을 함께한다.

소리축제 관계자는 "적절한 때에 내려주는 반가운 비처럼 이번 공연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음악인들이 빛내는 동시대 전통음악을 즐겁게 만끽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은 23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며,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 리허설 중... 춤추는 발가락 오늘 장수한누리전당서 공연

장수군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리허설 중... 춤추는 발가락 공연을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장수한누리전당 상주단체인 (사)예술단나라 주관으로 열리는 공연이다.

'리허설'을 배경으로 작품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휘자와 출연진 그리고 제작 지원원 간의 갈등과 고민을 음악과 코믹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무대 이면을 관찰하고 공연장에 울리는 가시 없는 독백과 예술의 철학을 관람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공연 이후에도 10월 20일 From 논개 & 안코르 2023 공연을진행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 지역민·학생들과의 축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 전북대박물관 문화행사 '큰 호응' 아프리카 전통 공연·전시 등 다채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 위해 르완다 대사관과 협약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이 '축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화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19일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린 문화행사에는 지역민과 학생, 유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대는 이날 '글로벌대학30 사업' 본지정을 위해 르완다 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7월에는 '글로벌대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모로코 대사와의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르완다 대사관 바쿠리무사 은쿠비토(Bakuramutsa NKUBITO M) 대사, 주한 모로코대사관 라자 라카르다르(Ms. Rajac LAKHDAR, Cultural Counsellor) 참사관과 각 대사관 직원, 류창수 전북 국제관계 대사,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이 함께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19일 '축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모로코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묵념에 이어 아프리카 전통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전시관람, 르완다 커피 시음, 모로코 전통차 시음, 아프리카 전통 음식 시식, 의상 체험,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신대곤 씨(39·전주시 중화산동)는 "대학이 마련한 문화행사를 함께 향유할 수 있어 좋았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의 문화를 접하고 또 커피도 직접 마셔볼 수 있어 즐거웠다. 앞으로도 지역민 대상 문화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대학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와 오래전부터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소통과 교류의 장이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박물관장은 "많은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북대 대학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자료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전북대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이어진다. /정은성 기자

#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 익산 '오늘' 서 전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2023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사업'에 선정된 청년 소모임인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이 익산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란히, 함께(Side by side)'라는 주제로 18~23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선후배 예술인이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미담보담의 청년작가는 고진영, 김병진, 김동희, 김진호 등 총 15명이며, 예술전공자 및 예술에 관심있는 일반 청

년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23 청년, 바이브라다, 우리 동네 한 바퀴, 2022 선택, 그리고 변화, 빛바람, 춘포 전시기획 등을 개최했다.

한편, '2023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모임이 주체가 돼 지역문제와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로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장터', 익산·임실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임실과 익산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힘든 동네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19일은 익산시 삼성동 부송주공 1차 관리사무소 앞에서, 21일은 익산시 모현동 모현주민센터주차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장터에서는 미술, 공예, 캠핑용품,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문화마일이 엄선한 다양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로 7만원 이상 또는 전액 소진시엔 기념품도 증정한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앞서 12일엔 익산에서, 13일엔 임실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문화장터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카드수혜자 중 90% 이상이 장터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6회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 제7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3시~

## 전북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 합창단

미음모이 합창단

김재시합창단

온고올여니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전주여성합창단